

사회적기업 모어댄 백팩 홈쇼핑서 완판

(컨티뉴)

SK이노베이션 홍보·마케팅 집중 지원

사회적기업 '모어댄'의 컨티뉴백팩이 홈쇼핑에서 완판을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 28일과 5월 3일 T-커머스홈쇼핑 'SK스토아' 방송에서 진행된 컨티뉴 백팩 판매 방송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1차 판매물량으로 책정한 물량이 모두 판매됐다고 7일 밝혔다.

SK스토아 관계자는 "브랜드 인지도 확보가 어려운 사회적기업임에도 제품의 품질, 디자인 등을 까다로운 소비자에게 인정받아 높은 판매량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들의 호응을 감안해 5월 중 3차 추가 판매 방송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소개된 컨티뉴 백팩은 그룹 방탄소년단의 리더 RM, 강호동 등 유명 연예인들이 사용하며 유명세를 탔다. 올 초에는 최태원 회



'유난희의 굿즈' 컨티뉴 백팩 방송 화면 캡처.

/SK이노베이션

장이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 현장에 참석해 컨티뉴를 직접 소개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컨티뉴를 생산하는 최이현 대표는 "가장 바쁜 사회적기업이지만 그만큼 좋은 실적으로 연결돼 직원들이 기쁘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모어댄의 설립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기업의 취약적인 인지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유 인프라 관점에서 홍보·마케팅 역량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구서훈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바디프랜드, KLPGA 공식 후원 바디프랜드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18시즌 일곱 번째 대회인 '제5회 교촌 하니 레이디스 오픈'을 공식 후원했다고 7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건강을 디자인하다'는 회사의 캐치프라이즈를 바탕으로 골프와 같은 스포츠 종목에 대한 후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춘천 엘리시안강촌 컨트리클럽(CC)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우승자에게는 프리미엄 안마의자 '파라오'(구매가 525만원), 출신 원을 기록한 선수에게는 '파라오S'(구매가 725만원)를 부상으로 증정했다. 참가 선수가 티업을 하고 있다.

/바디프랜드

한샘 가정의 달 맞아 다양한 사회공헌 펼쳐



한샘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 부모님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3일에는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내에 어린이 쉼터 조성을 위한 테이블 25개를 기증했다. 한샘과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은 지난 2014년부터 한샘이 경기도박물관이 진행하는 '행복수업'을 후원하며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한샘은 또 오는 12일에는 경기도 내 소외계층 아동 200여명과 임직원이 함께 의자 만들기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버이날을 맞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인연을 맺은 한부모 가정 어머니들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기도 했다. 어린이박물관에 테이블을 기증한 뒤 담당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현대홈쇼핑 "고객을 작가로 모십니다" 방송 작가 공모전

현대홈쇼핑은 '내가 만드는 현대홈쇼핑, 고객 작가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를 방송에 반영해 방송의 재미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시청자에게 가격·제품 구성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비교 설명 등 정형화된 '푸시형' 멘트보다 시청자를 움직일 수 있는 '공감형' 멘트를 방송에 도입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모집 부문은 생방송 멘트 및 대본 구성 등을 담당하는 '스토리 작가'와 영상·사진 등의 방송용 콘텐츠 제작 역할을 수행하는 '콘텐츠 작가' 등 두 부문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우선 가전·주방·식품·리빙 상품군 중 한 가지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이후 '스







토리 작가' 부문은 신선한 공감형 또는 생활형 방송 멘트가 담긴 대본과 나만의 생활 노하우와 레시피 등을 담은 코너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또 '콘텐츠 작가' 부문은 1분 내의 영상 또는 사진(10장 이내), 그림(스케치·일러스트·웹툰 중 선택)을 보내면 된다.

현대홈쇼핑은 대상(1명) 100만원, 부문별 최우수상(각 1명) 50만원, 우수상(각 1명) 30만원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김민조의 운세 5월 8일 (음 3월 23일)

민조 역학 학당(02-713-6207 www.kimminjo.co.kr)

-  48년생 주변의 충고를 흔쾌히 받아들일 것. 60년생 계약하는 일을 신중히 하라. 72년생 의도보다 내용에 중점을 두라. 84년생 천을귀인의 도움으로 문제가 풀린다.
-  49년생 마음이 안정되고 건강도 호전된다. 61년생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마라. 73년생 친구와 유익한 정보를 나눈다. 85년생 새로운 변화가 이뤄진다.
-  50년생 재운이 유리한 조건으로 흐른다. 62년생 문서관계 계약이나 환경의 변화가 있다. 74년생 마음이 평온하니 건강도 양호하다. 86년생 증권투자는 선별해서 하라.
-  51년생 일하는 재미가 있어 하루가 즐겁다. 63년생 신상의 변화가 있게 된다. 75년생 자동차 점검과 안전운전을 하라. 87년생 자원봉사로 기분 좋은 하루가 된다.
-  52년생 귀인을 만나 난관을 돌파하는 하루. 64년생 의견의 대립이 일어 날 수 있다. 76년생 동업자와 이익의 배분이 균등해야 한다. 88년생 성공의 기회가 오니 미리 준비 하라.
-  53년생 몸의 변화에 신경 써야 할 때다. 65년생 직장 안정과 기쁨이 있다. 77년생 마음의 동요와 환경의 변화가 있다. 89년생 금전 대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  54년생 체면 세우다 손실만 본다. 66년생 외관에 치중 하지 말고 내면을 기를 것. 78년생 귀문살이 있어 구설수가 있다. 90년생 좋은 인연을 놓치게 되니 조심하라.
-  55년생 공적인 일에는 희생정신이 있어야 된다. 67년생 의기투합으로 세력을 키워야 할 때. 79년생 지인의 도움으로 사업이 안정권에 있다. 91년생 남의 언쟁에 참견하여 구설수 있다.
-  56년생 일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한다. 68년생 눈치 없는 독단적인 대화는 화합의 장애가 된다. 80년생 동업이나 협력자를 만나 일이 수월해 진다. 92년생 우연한 기회로 도움을 받게 된다.
-  57년생 형살이 작음 하여 마음이 아프고 편하지 않다. 69년생 귀문살로 시기와 질투가 있게 된다. 81년생 이성문제 때문에 망신살이 있게 된다. 93년생 스트레스나 욕심을 버릴 것.
-  58년생 부부사이네 다투는 일이 있다. 70년생 아랫사람 때문에 문책당할 일이 있다. 82년생 가슴이 아프거나 몸을 상할 수가 있으니 주의 하라. 94년생 사소한 언쟁이 크게 되니 조심하라.
-  59년생 친구간에 금전 대처 관계가 있다. 71년생 책임 맡은일에 장애가 있다. 83년생 자형살이 작음 하니 이성간에 문제가 있다. 95년생 작은이익에 연연하다 체면을 상 한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2	7				
		5	9	4				
9	5				4			1
	5						1	
		7	8	3				
		9	5					
5	4				6		7	
	9	6	2	5				
6		7	1					3

	5	7		2		8	9	
	1						4	
4			8	1	7			2
	3			8			1	
5								9
7			6	9				8
	8			3			7	
		5				9		
			4	6	1			

스도쿠 정답								
8	6	1	5	2	7	9	4	3
3	5	2	9	6	8	7	1	4
7	8	4	5	1	6	9	2	3
5	6	9	8	2	7	1	3	4
9	1	2	8	7	6	5	3	4
1	7	8	9	5	2	6	4	3
2	9	8	7	6	5	1	4	3
6	5	2	7	1	8	9	4	3
5	8	2	1	9	7	6	4	3
8	9	6	8	2	5	7	1	4
7	1	5	6	9	8	2	4	3
8	7	6	5	9	1	2	4	3
6	2	4	7	1	8	9	5	3
9	1	5	2	8	7	6	4	3
2	9	4	1	8	5	6	7	3
4	7	9	6	2	5	1	8	3
1	6	8	7	2	4	5	9	3

문제 제공 = 보너스

김상회의 4季

물질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다

5월은 자연으로 나가 눈을 돌리면 전국 곳곳이 꽃 대궐이 된다. 그런 5월에 꽃의 물결이 몰아치는 날이 있다. 자식들은 손에 손에 카네이션을 들고 부모님을 찾는다. 부모들은 자식이 달아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거리를 거닌다. 꽃을 드리는 자식도 받는 부모들도 모두 흐뭇하다. 5월 8일을 항상 맞아하다보니 아주 오래전부터 어버이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든다. 5월 8일 어버이날은 1973년에 정해졌다. 그 전에는 어버이가 아닌 어머니날이었다. 정부는 1956년에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했고 여러 가지 행사를 치렀었다. 그런데 아버지날은 왜 없느냐는 의견이 나왔고 여론을 반영해서 어버이날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 어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르는 말이다. 단어 자체로는 간단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있다. 자식을 출산하고 갓난아이를 기르고 교육을 시키는 숭한 고난과 행복이 어버이라는 말에 들어있다.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어버이와 관련된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들을 때가 있다. 나이트 부모를 확대하고 병든 부모를 방치하는 뉴스들이다. 그런 기사를 보는 날은 하루 종일 마음이 좋지 않다.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온다. 다 자란 자식들은 더 이상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부모를 귀찮아하고 외면한다. 그러나 부모는 애끓는 사랑의 마음으로 평생 자식을 위해 애쓴다. 어버이날은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다. 자식들은 예년처럼 카네이션 한 송이를 들고 부모를 찾을 것이다. 누군가는 두둑한 용돈 봉투를 들고 가는 자식도 있을 것이다. 맛있고 비싼 밥 한 끼를 같이 하는 자식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이든 좋은 일이다. 부모를 생각하고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카네이션, 용돈 봉투, 밥 한 끼로 어버이날을 때우려 하는 마음이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부모가 준 사랑에 대한 보답은 세상의 어떤 물질로도 불가능하다. 용돈 봉투를 던지듯 내려놓고 돌아 나오지 말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세가 필요하다. 맛있는 밥을 대접하고 서로 헤어지는 것보다 하루라도 함께 잠을 자는 게 더 낫다. 어버이날은 어버이의 은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날이 되어야 한다. 귀찮지만 의무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들이 원하는 건 카네이션이나 돈이 아니라 부모를 돌아보는 자식들의 따뜻한 마음이다.